

[서평]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황정규외 3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이 중 원*

1

이 연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육연구실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인의 사회화과정에 관한 일련의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동 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사회화과정을 취학연령 이전기, 국민학교 학동기, 중고등학교의 청소년기로 3분하여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사회화의 내용과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앞의 두 시기에 관한 연구결과는 이미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김신일외 7인, 1983), 「한국인의 학동기 사회화과정 연구」(김영환외 2인, 1985)라는 제명으로 출간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의 사회화과정을 3인의 연구자가 각기 분담하여 집필한 것으로서 연구착수년도부터 거의 10여년, 총 15명의 연구자가 투입된 한국인의 사회화과정 연구프로젝트의 종결편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연구의 성과에 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이 책의 출간으로 말미암아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한국인의 사회화과정을 총체적으로 논의한 본

격적인 저술이 이제 우리 학계의 공동의 자산으로 확보된 셈이다.

사회화과정에 관한 논의가 사회학을 비롯한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등의 사회과학 분과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학계에서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업적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의 사회화를 주제로 한 논의는 대략 두 갈래로 나뉘어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서구 학자들의 사회화이론에 대한 개설적인 논의로서 주로 사회학개론 등의 개설서류에 S.Freud, G.H.Mead, E.K.Erikson, C.H.Cooley 등의 고전적인 이론들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특정 학자의 사회화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나 최근 사회화이론의 연구동향에 대한 고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인의 사회화과정을 다룬 경험적인 연구로서 양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은 수에 달한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석사학위논문으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초보적인 사회통계기법을 원용하여 기술, 분석한 계량적 연구 *quantitative approach*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연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구내용에 있어서도 일탈행동, 가치관, 도덕의식, 정치의식 등 사회화의 특정측면에 대해서 제한된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연구는, 먼저 연구방법에 있어서 구조화된 면접 *structured interview* 과 관찰을 병행한 질적인 접근법 *qualitative approach*을 채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한 개인의 사회화과정의 입체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다수의 표본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계량적 접근법으로 얻어진 연구결과에서 우리가 만나는 개인들은 현실사회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한 “평균인”일 뿐이다. 이와같은 연구에서 우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자중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친구를 사귀고 “얼마나 자주” 고민하는가는 알 수 있으나,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식이나 편견을 통계수치의 “권위”를 빌어서 재확인하거나 강화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지식은 그들의 행위와 사고가 과연 어떠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등의 통계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세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질적인 연구기법을 동원한 이 연구는 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사회화란 개인이 한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의 멤버십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보다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사회화란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통해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와 집단에 적합한 행동패턴을 익혀가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개인의 사

회화과정을 구성하는 기본범주인 사회시스템, 퍼스널리티, 문화의 개념과 마주치게 된다. 즉, 사회시스템이 한 개인을 그 구성원으로서 수용하는 사회화의 주체라고 한다면, 퍼스널리티는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 특성이 각인되는 객체이며, 문화는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개인에게 전달되는 사회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사회화과정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범주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관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인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상이한 학문적 배경에 기초하여 사회화과정의 제한된 측면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동일한 사회화과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사회학자들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강조해 왔다면,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학습과정”을, 인류학자들은 “문화의 수용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화과정의 내용을 크게 4가지의 영역, 즉 ①자아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문제 ②성역할과 성적 발달의 정도의 문제 ③가치관과 태도의 형성과정과 현황 ④사회적 역할과 기술 습득의 문제로 구분하여 기존의 사회화에 관한 논의의 범주들을 상당부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적 생태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지역을 도시, 농촌, 광산지역 그리고 공단지역으로 세분하여 각 지역별로 8명~40여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는 소수의 피

관찰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의 사회화과정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의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질적인 연구가 갖는 장점도 있으나 그 한계점도 인정한다면, 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탐색적이고 발전적인 수준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연구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흥미있는 논점의 하나는 현대 한국청소년들의 사회적 성격 *social character* 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사회적 성격이란 사회적 존재의 양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간에 형성되는 공통된 퍼스낼리티 *personality*의 유형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묘사된 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은 외견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혼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혼란된 사회적 성격이 우리사회의 “평범한” 청소년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애컨대,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관해서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 이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지만 서로 간에 깊이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나 부모의 생각이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반항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간에는 전반적으로 대화가 부족하여 서로 각자의 생활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부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긍

하고 있지만 오직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안계신 집에서 친구들과 음란비디오를 즐겨본다. 사회문제나 데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다. 간혹 대학생 데모에 동참해 본 학생도 있으나 그 편이 맞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신문이나 정치가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대학생들의 사회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기도 한다. 우리사회의 법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며 법은 지킬 필요가 있는 법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무엇이 지켜야 할 법인지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의 생활양식에서 자아통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고전적인 청소년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사회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E.H.Erikson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아이덴티티의 확산 *identity diffusion*의 현상은 일부 “예외적인” 청소년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위기”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의 사회적 성격이 종래의 고전이론들이 암묵리에 사회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해 온 “내부지향형”의 인간(D. Riesman)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성인을 불문하고 행동의 지침을 전통이나 타인의 견해와 같은 자기 외부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내부의 권위(신념과 양심)만을 추종하는 인간유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한 개인의 사회적 성격은 사회적 요구에 대

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오늘날의 우리사회와 같이 격심한 변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적응할 수 있는 성격유형이 창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상황에 대응하여 출현하는 새로운 성격유형을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의 정립이 사회심리학적인 과제로서 대두된다.

R.J.Lifton은 Erikson의 아이덴티티 확산의 개념과 Riesman의 타인지향형의 개념에 시사를 받아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사회적 성격을 프로테우스 *Proteus*형이라고 명명했다. 프로테우스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의 이름으로서 프로테우스적 인간은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유형이다. 프로테우스적 인간은 일관된 아이덴티티, 일관된 사상과 신념을 고집하지 않고 인생을 부단한 실험과정의 연속으로 간주한다. 그는 아무런 내면적 갈등없이 다른 선택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프로테우스적 인간에 있어서 인생은 몇번이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연극무대와 같은 것이다.

이와같은 프로테우스적 스타일은 Erikson이 말하는 identity확산의 증상, Riesman의 타인지향형 인간과 유사하지만, Lifton은 이들과는 달리 그것을 병리적 인간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인간형을 유동적인 현대사회의 요구에 고도로 적응한 “기능적 패턴”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한 생활양식 속에서 단순한 사회적응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맹아를 발견한다. 즉 Lifton은 기존의 온갖 권위체제가 붕괴된 현대사회에서 무의미성(不條理)의 감각을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

을 새롭게 선택해 가는 프로테우스적 인간의 능력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바로 이웃에서 매일 마주치는 청소년들의 독특한 생활세계와 만난다. 그들의 모습에서 “젊은 프로테우스”를 연상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우리사회의 요구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일견 모순에 가득찬 그들의 사회적 성격은 바로 우리의 사회구조가 빚어낸 산물이라는 점이다.

앞으로의 사회화연구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1차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의 차원에서 일보전진하여 그 역사적, 사회구조적 생성요인에 대한 분석 및 이론화의 작업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신일의 7인(1983),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영찬의 2인(1985), 한국인의 학동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진홍(1989),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 한국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한국청소년연구원, pp.33-44.
 Erikson, E.H.(1977), 조대경 역, 아이덴티티, 삼성출판사.
 Fromm, E.(1979), 왕사영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학일출판사.
 Lipton, R.J.(1971),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프로테우스적 인간(일역본), 성신서방.
 Riesman, D.(1964), 이만갑외 2인역, 고독한 군중, 을유문화사.